

라기스 3번 토기 (Lachish Ostracon III)

1935년에서 1938년 사이에 라기스로 들어가는 성문 입구의 망대에서 깨진 토기에 쓰여진 편지 글들이 대량으로 발견되었습니다. 이 편지들은 **느부갓네살이 유다와 예루살렘을 공격하던 시기 (605-587BCE)**에 긴급하게 주고 받던 편지들이었어요 (렘 34:6-7). 토기 위에 쓴 스물 한개의 편지들이 발굴되었는데요. 각각의 편지들은 당시 전쟁의 긴박한 상황에 대해서 참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. **라기스 4번 토기 조각 (Ostracon 4)**에는 함께

연합 전선을 펼치면서 싸우고 있는 다른 요새와 마을에 사람들을 보내었으나, 그곳에 아무도 없었다며 다급히 전장의 상황에 편지에 남기고 있어요. 아마도 전쟁 중에 전장에서 이탈하여 도망을 갔거나, 이미 그 요새가 **느부갓네살의 군대에 점령**을 당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듯합니다. 또 같은 토기 조각의 편지글에는 적군의 상황을 재빨리 전달하는 봉화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. **라기스와 대략 17km 떨어진 곳에는 아세가 (렘**

34:7) 라는 요새가 있습니다. **다윗과 골리앗이 싸웠던 전장터 부근**인데요. 북쪽으로부터 내려오는 적들의 상황을 **아세가에서 라기스로** 봉화로 전달해 주어야 하는데, **라기스에서 아세가의 봉화가**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. 이 글을 쓴 지휘관이 편지를 쓰면서 발을 동동 구르고 있었을 모습이 눈에 마치 영화처럼 그려집니다.

이 전쟁의 당시에 **예루살렘**에서는 예언자 **예레미야가** 활동하였습니다. 당시의 전쟁 이야기를 전하

Line 1	당신의 종 호샤야후(호세아)가 [1] 보냅니다.	Line 17	아히야후(아히야)의 아들 호다야후(호다야)와
Line 2	[1 나의 주, 야우쉬(요아스)에게] (왕이름 요아스가 아님)	Line 18	그의 사람들에 관해서는, 그(고니아)가 그들을
Line 3	여호와께서 나의 주에게 평화의 소식을 [2] 들려주기를 빕니다.		그곳에서 데리고 오라고 보냈다.”
Line 4	[2 좋은 소식을,] 이제 [3] 열어 주소서(들어주소서)	Line 19	나의 주(요아스)의 신하인 토비야후(토비아)가
Line 5	[3 당신께 바라기는] 당신의 종(호샤야후)의 귀에,		[7] 왔습니다.
Line 6	당신이 어제 저녁에 당신의 신하(편지를 가져온 사람)를 통해서 당	Line 20	[7 예언자의 말을 가지고] 야다의 아들 살룸(살
	신의 종(호세아)에게 편지를 보내셨습니다.		룸)에게, (예언자가) 말하기를
Line 7	당신의 신하를 통해서 보내온 편지 때문에 당신의 종(호세아)의 마	Line 21	“조심하라”(고 했습니다.) 당신의 종이 나의 주
	음이 매우 아팠습니다.		인께 보냅니다.
Line 8	왜냐하면, 당신께서 제게, “너는 글자도 읽지		
Line 9	못한다.”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. 여호와와 살아계심을 두고		
	말씀드립니다. (그동안) 다른 누군가가		
Line 10	[4] 제게 읽어주었다는 말이겠습니까? (보낸 편지의 내용을 제		
	대로 이해했습니다.).		
Line 11	[4 (당신이) 제게 보낸 모든 편지를 (저대신),		
Line 12	저는 편지를 읽었고, (뿐만 아니라) 거듭 반복해서		
Line 13	자세하게 읽었습니다 (편지를 대충읽지 않고 세심한 곳까지 자세하		
	게 살폈습니다.). 당신의 종에게 [5] 전달되었습니다.		
Line 14	[5 이 말이,] “군대 지휘관		
Line 15	엘나탄의 아들 고니아가 [6] 내려갔다.		
Line 16	[6 이집트로]		

라기스 3번 토기조각 (Lachish Ostracon III)의 번역 . 이 번역은 A.Zammit, “The Lachish Letters: A Reappraisal of the Ostraca Discovered in 1935 and 1938 at Tell-Duweir”, unpublished D.Phil dissertation, University of Oxford (2016), 114-32를 참조했다.

는 예레미야의 글들과 함께 이 편지들을 읽으면, 유다가 바벨론에 멸망하던 상황을 보다 생생하게 느껴 보실 수 있어요. 학자들은 라기스에서 발굴된 이 편지들이 유다가 멸망하기 바로 전 즈음에 주고 받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. 이 때에는 단지 느부갓네살의 군대와와의 물리적인 충돌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. 전쟁이라는 정치적으로 위험한 상황에서 서로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사람들이 유다 안에도 있었기 때문에, 유다의 내부에서도 많은 갈등이 있었습니다. 성경을 통해서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예언자와 예언자들이 서로 의견을

달리해서 서로 다투었고 (렘 27-28), 왕과 예언자가 서로 다투었습니다 (렘 36). 그 중에 한 이야기를 해드릴까요.

예레미야의 시대에 예레미야와 같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언을 하는 참 예언자가 있었습니다. 그 사람의 이름은 우리야입니다 (렘 26:20-23). 우리야도 예레미야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, 그리고 정치적인 판단이 아니라,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본 유다를 냉철하게 비판했던 모양이에요. **여호야김 왕** (609-598년)은 자기의 정치적인 판단과 달리, 반대의 이야기를 하는 하나님의 예언자 **우리**

야를 곱게 보지 않았겠지요. 그래서 **여호야김**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하는 **우리야**를 예언자로 존중하지 않고, 정치적인 적이라고 간주하고, **우리야**를 죽이려 하였습니다. 이 사실을 알고는 **우리야**가 **이집트로** 도망갔습니다. **우리야**가 얼마나 유다 사회에서 영향력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, 미루어 짐작하건데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끼치던 예언자였지 않나 싶습니다. 그래서 **여호야김**은 도망간 **우리야**를 꼭 잡아 죽여야겠다는 생각으로 사람들을 **이집트로** 보내서 **우리야**를 잡아오게 하는데요. **여호야김**이 보낸 사람의 우두머리가 **악볼**

의 아들 **엘라단**이었습니다. 기어코 쫓아가서는 **우리야**를 잡는데 성공했습니다. 그리고 **여호야김** 앞에 데려가서는 칼로 죽였어요.


이 끔찍한 사건을 유추할만한 성경 밖의 이야기가 **라기스**의 편지글에서 발견되었습니다. 세번째 편지 (Ostracon III)인데요.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[번역 참조].

악볼의 아들 **엘라단**(엘나탄)이 **여호야김**의 명령을 듣고 **이집트**로 내려갑니다. 그와 함께 몇몇의 사람들이 함께 **우리야**를 체포하기 위해서 내려가는데, 아마 그 안에 **엘나탄**의 아들 **고니아**도 있지 않았을까요? 만약 **라기스**에서 발견된 이 편지가 그 당시를 반영한 것이라면, 이 편지 이전에 아마도 **여호야김**이 그의 군대 지휘관을 통해서 (아마도 요아스?) **라기스**의 **호샤야후**에게 **엘나탄**과 그의 아들 **고니아**, 그리고 몇몇의 군인들이 **우리야**를 잡기 위해서 **이집트**로 내려가니, 그 가는 길 중간에 있는 **라기스**에서 그들을

잘 대접하라는 편지를 보냈을 것입니다. 그 편지를 받은 **호샤야후**가 어떻게 했는지는 기록되어 있지 않아서 모르겠지만, 어찌되었든 간에 편지를 보낸 지휘관이 기대하는 만큼의 역할을 해내지 못했던 모양입니다. 지휘관 **야우쉬**가 그것에 대해서 질책하는 편지를 보냈겠지요 (“너는 글자도 모르니?” Line 8-9). 그 편지에 대한 답신이 바로 이 토기 조각에 기록된 편지일지도 모릅니다. 편지의 말미에는 **토비아후**가 전한 예언자의 말, “조심하라.”는 메시지를 첨언한 것으로 보아서, 일종의 정보활동에 대한 보고서의 역할도 함께 하지 않았나 싶어요.

읽기에 따라서는 **라기스**에 있는 지휘관이 **야우쉬**이고, 다른 지역의 하급 지휘관인 **호샤야후**가 보낸 편지로 이 글을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. 학자들 사이에는 이 편지의 수신자와 발신자의 이름만 있을 뿐, 정확하게 이 편지의 문맥만을 가지고 확정을 내릴 수 없기에,

단정지어서 이 토기에 쓰여진 편지가 바로 **예레미야** 26장의 그 사건을 두고 오간 편지라고 확정할 수는 없다고 하지만, 대부분의 학자들이 조심스럽게 **예레미야**서의 사건과 이 편지의 연관성을 이야기 합니다.

이 편지글을 읽으며, 왕의 말과 예언자의 말 사이에서 고민하던 전쟁 지휘관들의 모습이 얼핏 보이는 듯하여 마음이 가볍지만은 않습니다. 그 상황에서 저라면 어떻게 했을까?를 한번 더 생각하니,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살아간다는 것에는 정말 큰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금 알게 됩니다. 

❖ 토기를 그리고 그 해석을 참고한 책들과 이 글을 쓰는데 바탕이 된 박사 학위 논문 A.Zammit, “The Lachish Letters: A Reappraisal of the Ostraca Discovered in 1935 and 1938 at Tell-Duweir”, unpublished D.Phil dissertation, University of Oxford, 2016.